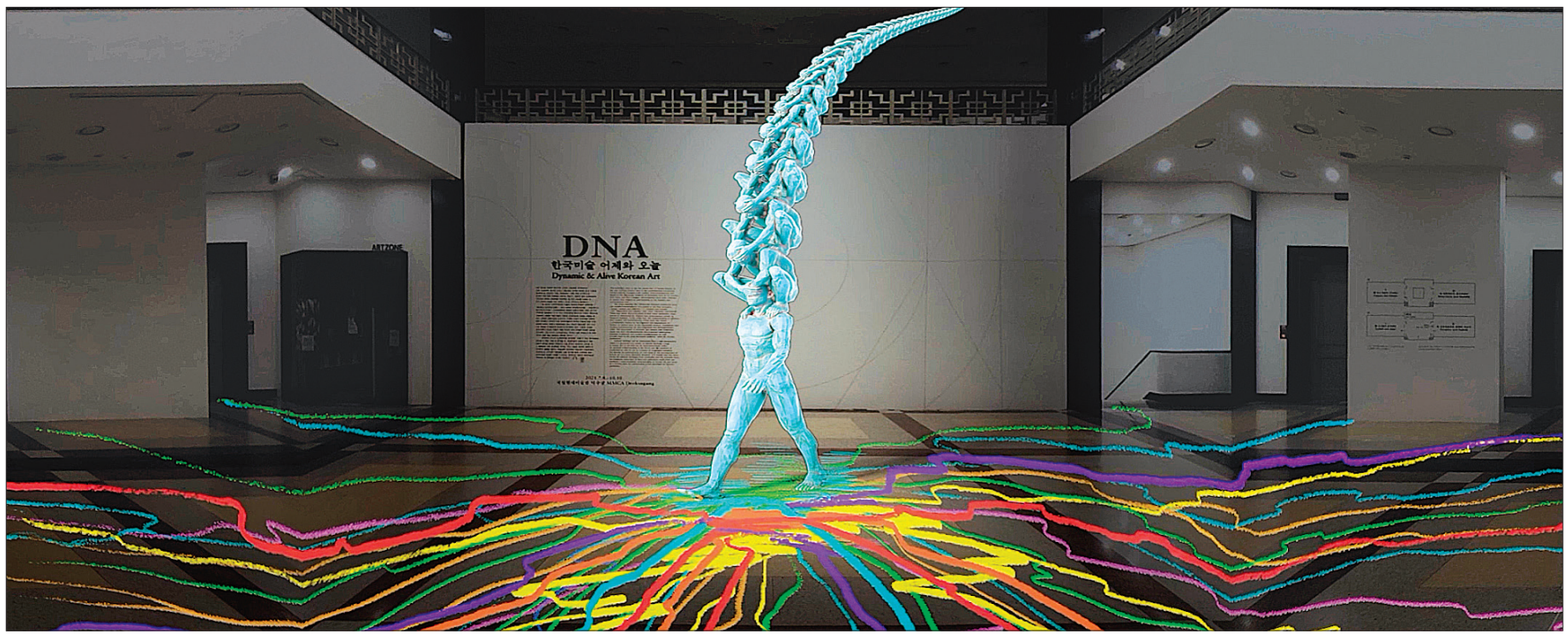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국립현대미술관 VR Episode 2
서도호 '카르마'

오프라인 전시작 VR 영상으로 재탄생
'업보'서 영감, '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오프라인 작보다 다채, 조회수 140만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MMCA VR | Episode 2 | 카르마 | 서도호 1-4 screenshot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미술작품이 가상현실에서 재탄생한 작품을 소개한다. MMCA VR Episode 2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Karma)'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MMCA VR 영상 시리즈, 즉 실감나는 한국미술 콘텐츠를 제작해 제약 없는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360° VR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관람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는 2021년 7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린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을 통해 전시됐던 작품으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카르마'(2009)의 원형 틀을 활용한 조형물이다. 제목으로 쓰인 '카르마'는 '업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작가는 그 의미에서 영감을 받아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지나온 시간과 세대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인간의 어깨 위로 인물들이 무한하게 뻗어나가 천장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바닥에서 시작되는 오름차순, 천장의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림차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나'의 어깨에 앉아있는 나의 업보들, 혹은 무수히 많은 조상들의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있기까지 기여한 존재를 보여주며 지난 세대, 시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치 나무의 뿌리, 가지, 잎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가계도(family tree)'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서도호의 '카르마'는 서로에 대한 의지, 존재의 기원 등을 보여준다.

VR로 재탄생한 서도호의 '카르마' 영상(3분)은 지구 반대편 런던에 있는 서도호 작가의 열정적인 참여와 자료 제공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새롭게 태어난 서도호의 '카르마'는 실제 미술관에 전시됐던 작품보다 훨씬 다채롭다. 여러 그림들이 함께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영상 속에서 어떤 성인이 아이를 목마로 태워 걸어가면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작가가 이 작품 제작에 영감을 준 '눈가리개'를 표현한 것이다. 서 작가는 종종 딸들에게 목마를 태워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그의 이마를 붙잡고 눈을 가렸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업보임과 동시에 위태로운 순간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나 출생 환경 등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탑을 이룬 현상들은 업보를 상징하는 동시에 위태로운 순간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나타낸다. '카르마'는 수많은 조상들과의 인연과 신뢰, 서로에 대한 의지, 업보, 존재의 기원을 보여주며,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영상의 백미는 재생 중인 영상을 360° 로 돌려보며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나 모바일 화면일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 화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TV와 같은 큰 화면으로 감상할 경우 다른 차원에 들어간 기분을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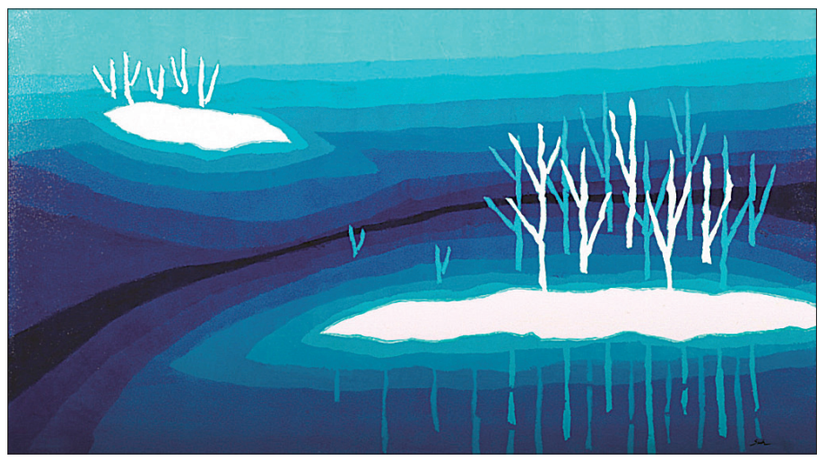
전시 공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도호의 '카르마'는 VR 영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영상은 큰 호응을 얻으며 1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은 한국미의 근간을 조명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미술의 유기적 관계고찰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한 전시로 국보, 보물 등 문화재 35점과 근현대미술 130여 점, 자료 80여 점을 전시하며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미의 DNA를 찾는데 의미를 두었다.

서도호 작가는 뉴욕과 런던,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설치미술가이자 동시대 미술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유학 생활을 했는데, 유학 초기 '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불편하고 낯선 감각을 '공간의 이동과 전치'의 개념으로 승화시켜 작품화했다. 고정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공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유목적인 공간'의 개념을 탐구하며 '집 속의 집'이라는 대표작을 선보였다.

푸른 이상향 이미지로 전하는 '명상'

서경자 개인전 'MEDITATION'
갤러리 이즈 2월 16일~3월 1일


서경자作 명상시리즈4.

마음의 평온과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명상 시리즈' 작품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서양화가 서경자가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MEDITATION'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작가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단순명료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삶의 시작과 함께하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원초적 생명탄생의 신비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인생의 담론을 진지하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풀어냈다. 블루 계열의 채색이 주류를 이루어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량감이 감상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명상 시리즈는 점점 번지는 파장의 흐름이 설렘으로 다가오고 머물렀던 생명체는 더 이상 정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 소통의 기운을 나눈다. 또한 작품 속의 나무는 땅과 하늘의 기운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주의 평화와 개인이 누려야할 행복을 기원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주체적 삶이 다양성 존중을 전제로 풍요를 만들어 즐거움이 동반된 인생 여정의 출발이 되기를 염원하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작품 속의 추상적인 원은 흥분되고 감각적인 떨림으로 그 주변에 서서히 퍼져나간다. 이러한 시각적 폭발은 심미적이면서도 풍미 있게 꼬물거리며 동시에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작가의 의도는 최소한의 마띠에르로 본질을 포착하고,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삶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해 내는 것에 있다. 회화적 탐구는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해 가는데 흥분을 느끼며 공기, 물, 증기, 식물과 같은 미세 유기물적 요소를 탐색하고 있다. 서경자의 '명상'은 우리를 시각적 명상으로 이끄는데, 창조의 신비한 비밀에서 맥박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관찰한다.

서양화가 서경자는 "푸른 이상향의 이미지 'The blue'를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명상 시리즈 작품을 해왔으며, 마음실어내기 'The red in blue'로 이어져 이번 전시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명상 시리즈를 통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명상'이라는 대전제 앞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대중에게 조금이나마 평온의 시간을 주고자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서경자 화가는 홍익재학교 서양화과, 동 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했다. 300여 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02)736-6669. 박재완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입회비 20만원), 무료특강 (2년코스)
개 강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수업,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 다루는 법(목탁·요령·북·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장소 안성 봉운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일죽면 고은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매주 목요일 교육 시간표		
오 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 후		
1시	교양과목 : 태평소	대산스님
2시	북 타법	진효스님

※ 수업은 시간 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행사 문의 ★
윤달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2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